

조선로동당창건 75돐경축 열병식 성대히 거행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참석하시였다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창건 75돐경축 열병식이 10월 10일 0시 김일성광장에서 성대히 거행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광장에 도착하시자 조선인민군 명예위병대의 엄숙한 영접의식이 진행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조선인민군 명예위병대 대장의 영접보고를 받으시고 명예위병대를 사열하시였다.

환영곡이 울리는 가운데 우리 당과 국가의 위대한 대표자이시고 우리 혁명의 탁월한 령도자이신 김정은원수님께서 열병식 광장 주석단에 나오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열병의 환호를 울리는 열병식참가자들과 관중들에게 손저어 따뜻한 인사를 보내시였다.

노래 《빛나는 조국》이 주악되는 가운데 조선로동당창건 75돐을 경축하여 21발의 레포가 발사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격정에 넘치신 연설을 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류례없이 혹독한 격난을 뚫고 헤치며 일심전력하여 마련한 값진 성과와 승리를 안고 위대한 10월명절을 크나큰 영광과 긍지로 빛낸 온 나라 인민들과 인민군장병들에게 충심으로 되는 감사와 열렬한 축하를 보내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강력한 군사력으로 위대한 우리 국가와 위대한 우리 인민의 영원한 안녕과 미래를 수호하며 더 큰 용기와 신심, 비상한 열정과 각오를 가지고 새로운 발전과 번영으로의 진군을 시작할 결심을 피력하시면서 사회주의의 휘황한 미래를 향하여, 새로운 승리를 쟁취하기 위하여 힘차게 전진해나가자고 절절히 호소하시였다.

인민에 대한 강렬한 사랑과 진정어린 믿음이 구절구절마다에 뜨겁게 넘쳐흐르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연설을 무한한 격동속에 받아안은 전체 참가자들은 감격의 눈물을 흘리면서 위대한 어머니를 우리 열광의 환호를 터쳐올리였다.

이어 승엄한 국기계양식이 진행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인 리병철 조선인민군 원수에게 총참모장인 박정천 조선

인민군 원수가 열병부대들이 조선로동당창건 75돐 경축 열병식준비검열을 받기 위하여 정렬하였다는것을 보고하였다.

리병철 조선인민군 원수가 열병부대들을 점검 하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신 경애하는 원수님께 리병철 조선인민군 원수가 당창건 75돐경축 열병식이 준비되었음을 정중히 보고드리였다.

위대한 당의 령도밑에 최정예혁명강군으로 강화발전된 공화국무력의 열병종대들이 총참모장인 박정천원수의 구령에 따라 행진을 시작하였다.

우리 혁명무력이 항일전의 말발굽소리높이 백두광야를 주름잡던 조선인민혁명군의 자랑찬 전통을 계승하였음을 보여주는 명예기병종대가 팽개재소장의 인솔하에 호기차게 달려나갔다.

전군김일성-김정일주의화강령과 4대강군화포선을 제시하시고 탁월한 평균술로 인민군대를 사상과 신념의 최강군으로 강화발전시키신 경애하는 원수님께 최대의 경례를 드리며 열병대원들은 목청껏 《만세!》의 합성을 터쳐올렸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백전필승의 영용한 기개를 떨치며 지축을 울리는 열병대오들에 뜨거운 인사를 보내시였다.

수도의 밤하늘에서는 위대한 당의 슬하에서 자라나 당과 생사운명을 함께 하며 75년의 자랑찬 력사에 충성의 함로, 백승의 함로만을 수놓아온 주체적항공무력의 불패의 위력을 남김없이 과시하며 열병비행이 진행되였다.

대관현악의 장쾌한 선율이 광장을 진감하는 속에 최정예혁명군대의 강위력을 시위하며 장갑차종대를 선두로 한 기계화종대들의 열병진군이 시작되였다.

인민군대전투력의 상징이고 무쇠주먹인 주력망크종대가 김주삼총장의 인솔하에 평음을 울리며 전진해나갔다.

불수룩 배심든든해지는 최강의 무력인 미더운 포병무력의 진군화폭이 련이어 펼쳐졌다.

조국과 민족의 천만년미래를 담보하는 조선로동당의 자위적핵억제력의 상징인 로켓종대들이 기세찬 동음을 높이 울리였다.

적들을 공포와 진물속에 몰아넣었던 력사적인 2017년 11월 29일 조선의 존엄과 힘을 우주만리에 떠올린 자랑을 안고 장창하상장이 인솔하는 대륙간탄도로켓 붉은기 제1중대 중대가 진군해갔다.

김정식상장의 인솔하에 위대한 우리 국가와 인민의 권위와 안전이 실려있는 거대한 핵전략무력이 지심을 무겁게 누르며 들어서는 광장이 격정과 흥분의 열파로 세차게 끓어번졌다.

최악의 시련속에서 100% 우리의 힘과 기술, 우리 식으로 설계 제작한 주체식최첨단 전략무기들을 커다란 민족적자긍심을 안고 바라보며 관중들은 결사의 공격정신으로 협로역경의 고비를 넘고 넘으시며 부국강병의 세기적숙원, 민족사적대업을 이룩하신 만고절세의 영웅 김정은원수님께 최대의 영광과 고마움의 인사를 삼가 드리였다. 민족의 존엄과 기상을

담아시고 나아가는 주체병기들의 웅진장중한 모습은 조선로동당의 현명한 령도가 있어 주체혁명의 최후승리는 확정적이며 우리의 앞길을 막아나서는 어떤 도전세력도 멸망을 면치 못한다는것을 세계 앞에 똑똑히 보여주었다.

열병식이 끝나자 또다시 우리같은 《만세!》의 환호성이 하늘을 진감하는 가운데 경축의 축포가 터져올랐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열광적으로 환호하는 관중들에게 따뜻한 답례를 보내시였다.

조선로동당창건 75돐경축 열병식은 이 땅위에 존엄높은 정치사상강국, 세계적인 군사강국을 일떠세워 부국강병의 세기적대업을 이룩한 조선로동당의 불멸의 업적은 청사에 길이 빛날것이며 사회주의의 미래를 향하여, 새로운 승리를 쟁취하기 위하여 폭풍노도쳐나아가는 위대한 인민의 거세찬 진군을 가로막을 힘은 이 세상에 없다는것을 힘있게 과시하였다.

본사기자

